

## 우리의 사명감

**존**경하는 신장학회 회원님, 환우 여러분, 저는 제 8대 신장학회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가꾸어온 신장학회의 전통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사명과 책임감에 신명을 바쳐 헌신하기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신장학회는 학문적 발전을 수행하기 위해 학술활동을 통해 그동안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회원 상호간의 학문교류 및 각 회원들간의 친목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장학회가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학회로 인정받게 된 것은 모든 회원뿐만 아니라 신장학회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협력 업체분들의 도움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신장학회가 괄목할만한 내적인 학문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요소, 즉 환우와 회원님들께 뜻대로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신장과 건강의 세 번째 책자 발간을 계기로 신장학회는 회원들의 동정, 보험관련 사항, 학회활동 등을 재정립하여 회원들에게는 충실한 정보제공은 물론, 환우들에게도 양질의 의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홍보하려 합니다.

저는 이제 직무를 이어 받으면서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시대 상황이 냉엄하고 어렵다는 현실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의료 정책의 비현실성, 과중한 임금인상과 일부 의사에 의한 무절제한 의료행위, 이에 대한 상실감, 경영 압박 등이 그 예입니다.

이 시대의 급속한 변화는 어떤 하나의 기준이나 이론이 아니라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신장학회가 원칙에 충실하고 신장학회의 사명과 존재 의미를 존중하여 이를 과감히 시행한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회원들의 모든 활동이 신장학회를 중심으로 결집되어야 하고 회원들간의 존경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신장학회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회원님들은 고통받는 환우와 그의 가족들에게 무엇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합니다.

본 책자를 통해 양질의 의료, 적정진료평가의 요소가 무엇인가를 환우에게는 물론 보건정책 입안자에게도 교감을 얻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분들과 환우 여러분의 건강하심을 기원하며 본 책자가 나오기까지 힘써 주신 조원영, 정해일, 홍보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윤 건 일  
신장학회 이사장

2002. 9

대한신장학회 이사장 윤 건 일